

생애금융보고서

40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

주린이가 되기로 걱정하다

[주식+어린이]

2021.02.08

100년 행복연구센터 | 김혜령 연구위원

 하나금융그룹 | 100년 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 - Money편 -

■ 우리나라 국가경제와 가계 중심축 40대, 지난 생애금융보고서 「금퇴족으로 사는 법」에서 40대 초반은 금융자산 만들기의 마지노선으로 생애 자산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자산관리의 지형이 급변하는 시점에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자 할까. 100년 행복연구센터는 서울 및 4대 광역시의 40대의 금융투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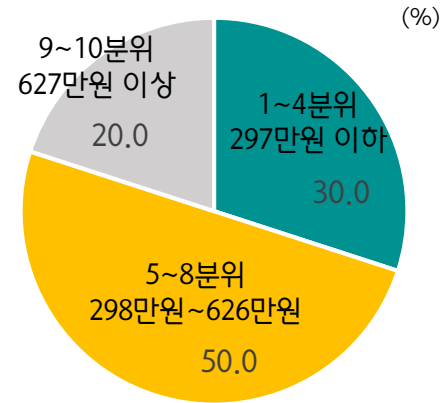
1. 대상: 서울 및 4대 광역시 거주 40대 소득자 1,000명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소득구간별 임의할당
2. 기간: 2020.11월
3.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서베이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4. 실행: 한국리서치(주)

조사대상의 성별 및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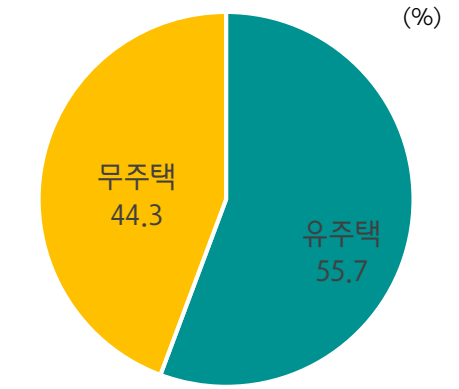
(단위: 명)

성별	남성	여성
만 40~44세	269	255
만 45~49세	278	198
전체	547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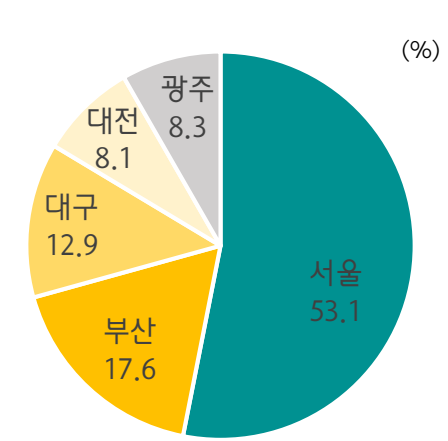
가구 소득



주택보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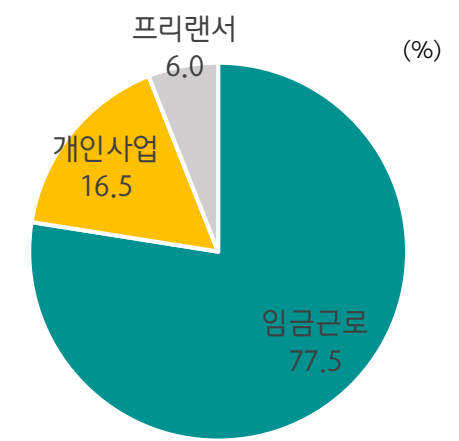


거주지역



전체=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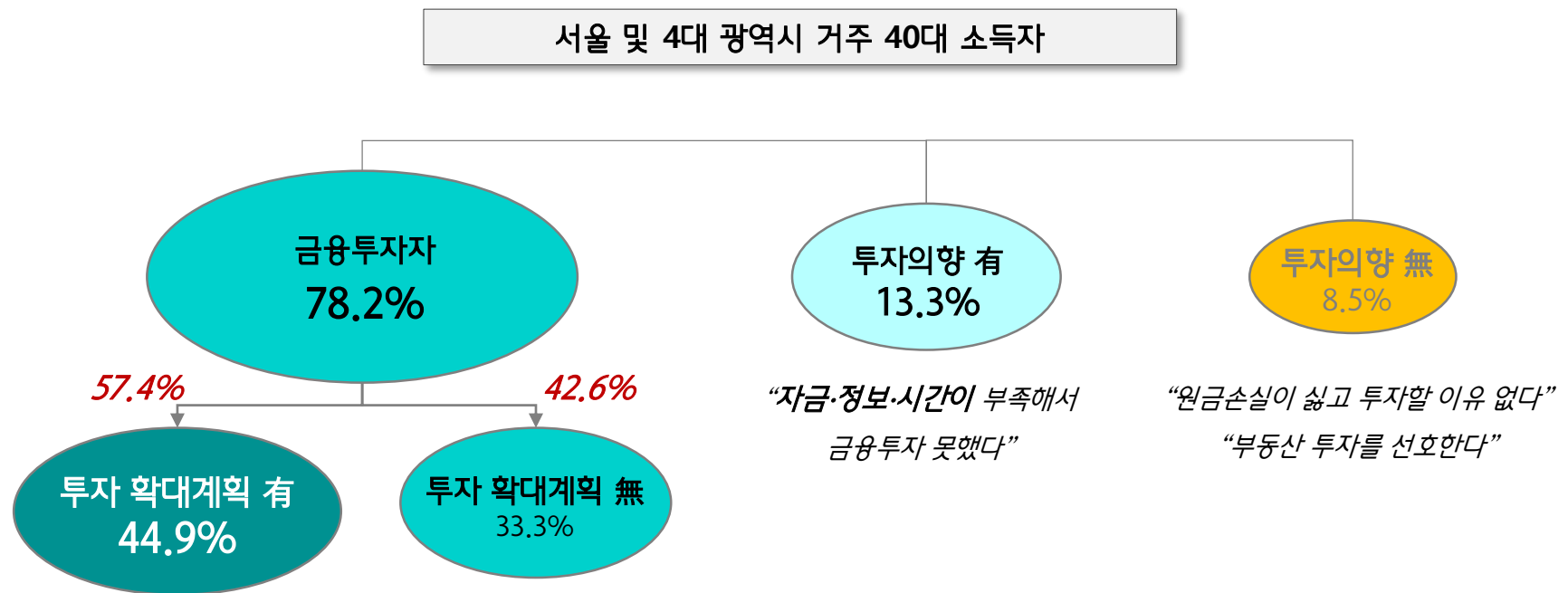
직업



I. 투자와 동행을 시작하는 40대

1. 금융투자로 'Money Move'는 계속될 가능성

- 서울과 지방 4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40대 소득자 중 78.2%는 금융투자자이며, 상당수가 앞으로도 투자규모를 늘릴 예정
 - 「금융투자자」란 현재 주식, 채권 및 펀드 등 투자성 있는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을 말함
- 저금리가 지속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목돈 마련이 어렵다는 생각이 금융투자를 확대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앞으로 가구소득이 크게 늘지 못할 것이라는 점, 주택(부동산) 가격이 높아진 것도 금융투자 확대에 영향을 줌
-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13.3%는 현재 금융투자 경험은 없으나 '자금부족·정보부족·시간부족'이 해소되면 투자할 의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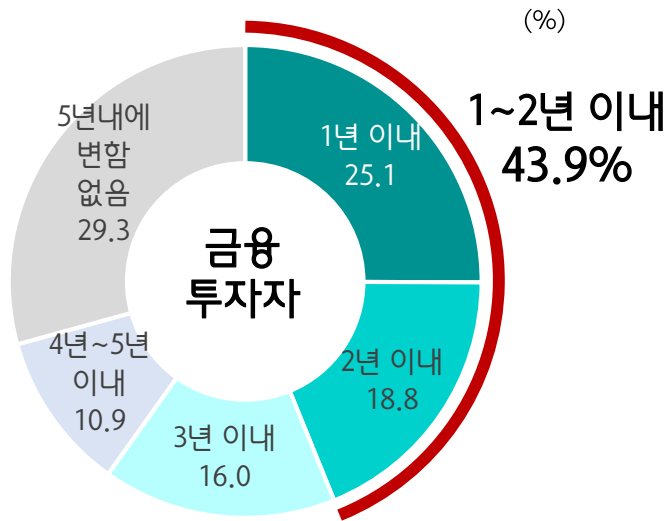


* 전체(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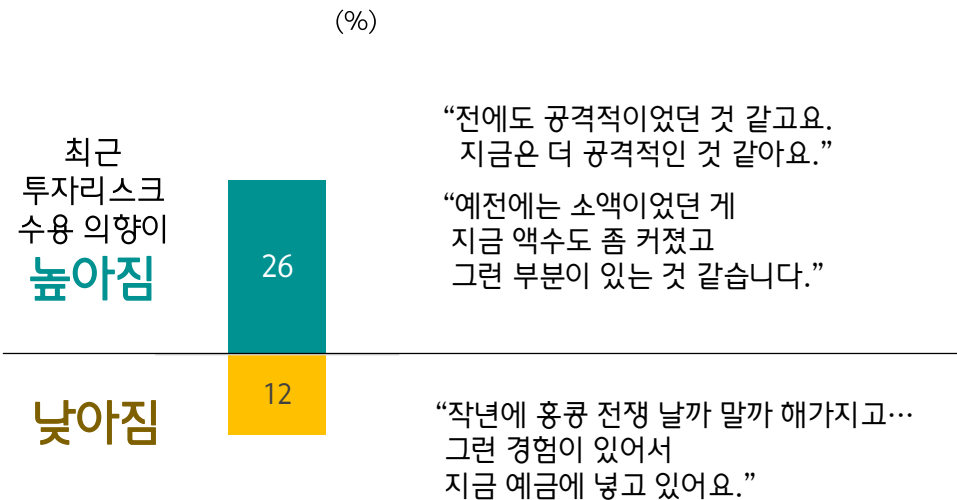
2. 최근 투자를 확대하거나 리스크 선호도가 높아진 경우가 많음

- 금융투자자중 43.9%는 과거 1~2년 사이에 금융투자 규모를 확대하였고, 15.0%는 최근 1년 내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함
- 금융투자자 가운데 38.0%은 최근 자신의 리스크 선호도가 바뀌었다고 보았는데, 보수적으로 바뀐 경우(12.0%)보다 중전에 비해 공격적이 된 경우(26.0%)가 더 많음
- 리스크 선호도가 높아진 경우에는 대부분(73%)이 '직접투자'를 선호하였으며 1순위 투자대상은 국내주식이었음.
 - 상당수가 '한국형 뉴딜(BBIG)', '글로벌 4차산업' 등의 투자테마를 인지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상품 중에서는 ETF 인지도가 높음

금융투자 확대 시기



최근 투자리스크 수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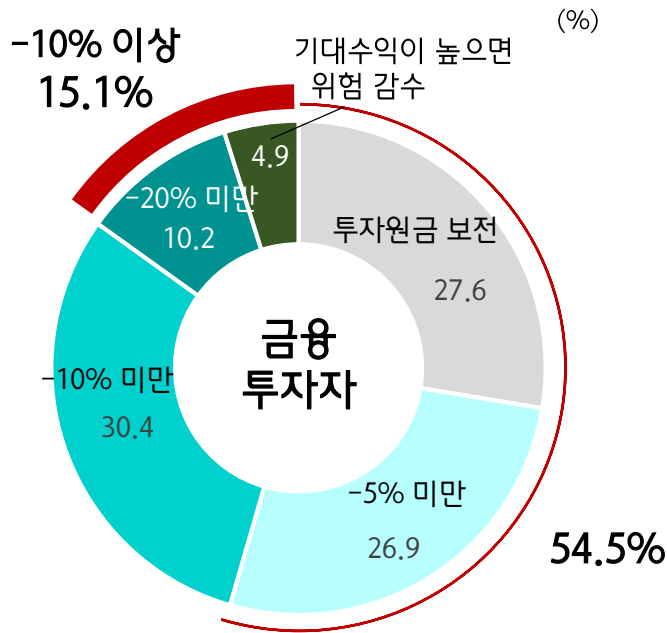


* 금융투자자(n=782)

3. 손실 감수 의향이 낮은 투자자도 많은 만큼 개인의 상황에 맞춘 세심한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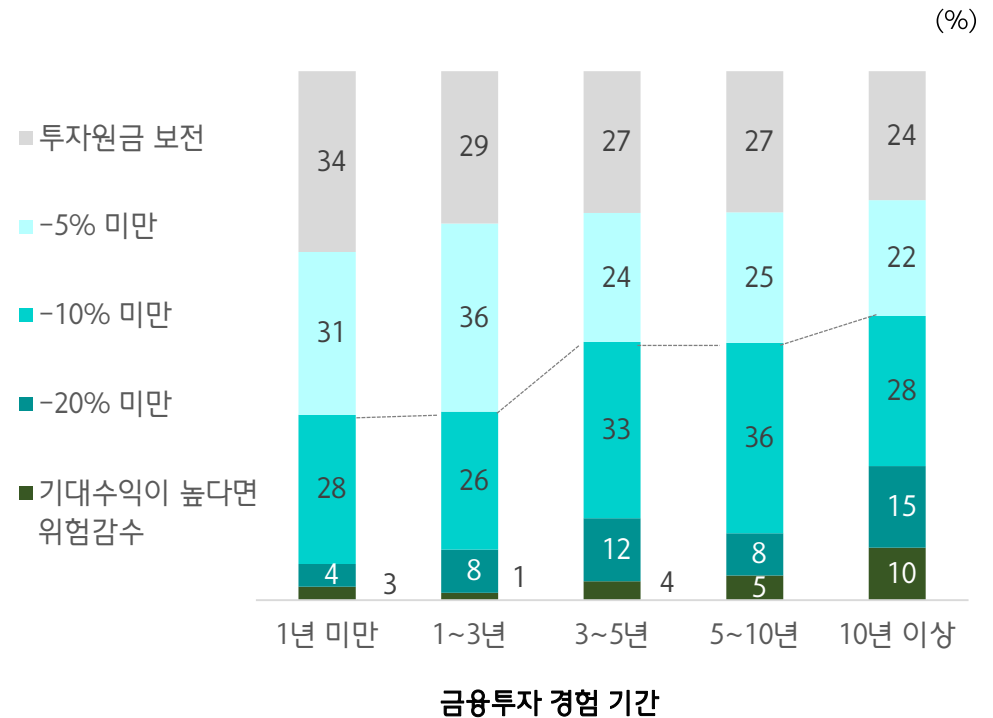
- 금융투자자 2명 중 1명(54.5%)은 ‘투자원금 보전’ 또는 ‘-5% 미만’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는 안정형/안정추구형 투자자
 - ‘-10% 이상’의 투자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고 응답한 공격적인 투자자는 15.1%에 불과
- 투자경험이 길수록 리스크 감내 의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40대 투자자 중 33.6%는 투자를 시작한 지 3년 이내

손실 감수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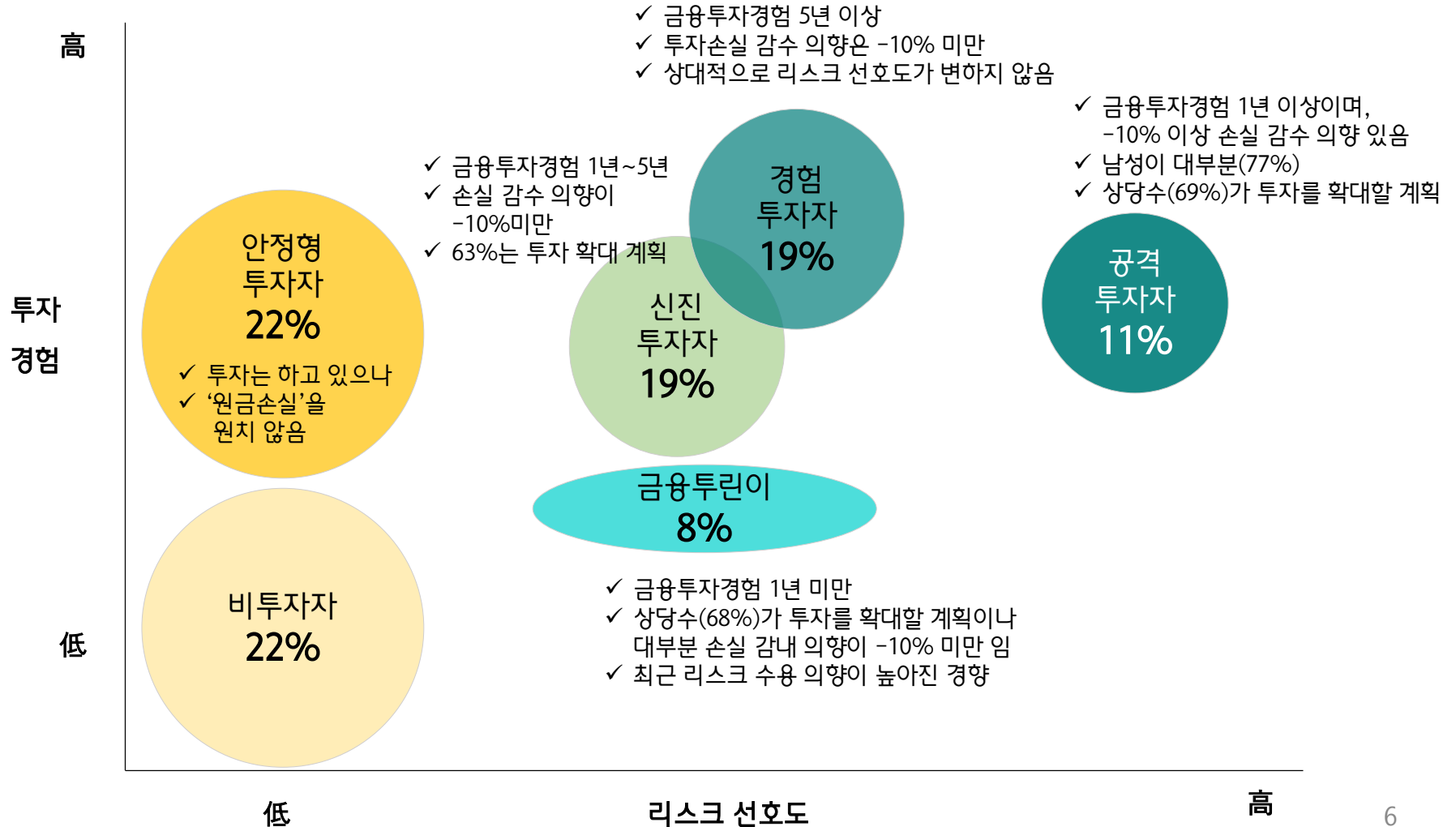
* 금융투자자(n=782)

금융투자 경험 기간별 손실 감수 의향



4. 40대 금융투자자의 유형 분류

- 조사대상자를 '투자경험'과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5. 유형별 평균적인 재정상황과 금융투자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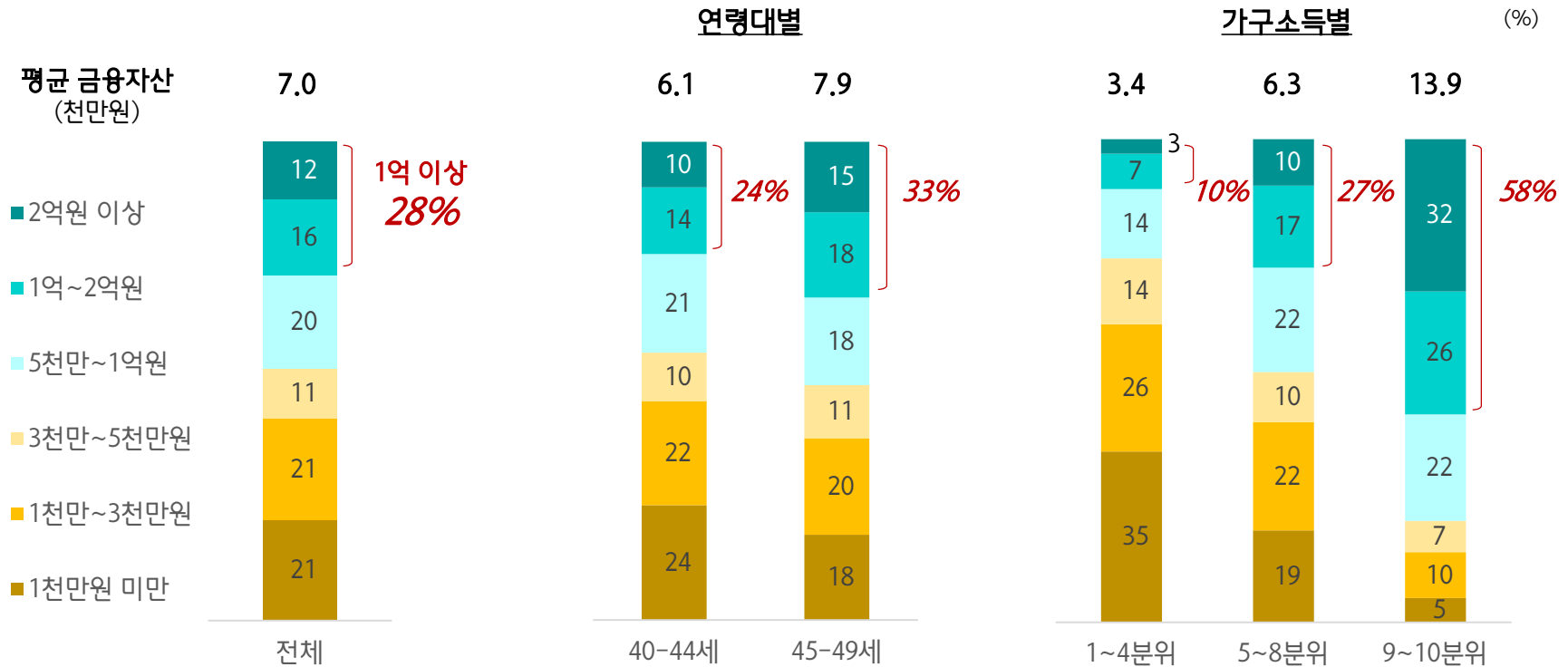
구분	비중	평균적인 재정상황	금융투자 솔루션
공격 투자자	11%	총자산 5.3억원(순자산 4.5억원) 금융자산 9.4천만원 투자자산 비중 51%(주식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주도적인 투자의향 (Do-it-myself)에 맞춰 개별 주식 및 ETF 등의 투자정보 필요
경험 투자자	19%	총자산 5.7억원(순자산 4.9억원) 금융자산 1.1억원 투자자산 비중 32%(주식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주식과 더불어 채권, 부동산, 구조화, 금 등의 대체투자를 포함한 투자포트폴리오 다양화 ✓ 다양한 투자자산(부동산) 및 세계 전략 정보
신진 투자자	19%	총자산 4.3억원(순자산 3.3억원) 금융자산 7.5천만원 투자자산 비중 26%(주식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리스크 점검 및 적립식 투자에서 자산배분으로 이행 ✓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장형 섹터(테마) 적립식 +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병행
금융 투린이	8%	총자산 3.4억원(순자산 2.4억원) 금융자산 5.0천만원 투자자산 비중 30%(주식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주식 중심 성장형 투자 테마에 관심이 많은 것 고려 ✓ 투자경험이 적으므로 개별종목보다 분산투자 ✓ 성장형 펀드 또는 ETF의 적립식 투자로 리스크 관리
안정형 투자자	22%	총자산 3.7억원(순자산 2.8억원) 금융자산 6.0천만원 투자자산 비중 19%(주식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α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채권, 구조화 상품 ✓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인 만큼 국내외 주식 등 성장형 자산의 장기투자에 관한 정보 필요
비 투자자	22%	총자산 2.6억원(순자산 2.1억원) 금융자산 3.5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금융재산 형성하기에 대한 지원 ✓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ISA 및 연금) 활용

II. 40대의 금융투자 현황과 최근 투자인식 변화

평균 금융자산은 '7천만원', 28%는 '1억원 이상'

-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후반의 평균 금융자산은 7.9천만원으로 40대 초반(6.1천만원)에 비해 29.5% 더 많음
 - 40대 초반 4명 중 1명(24%), 40대 후반 3명 중 1명(33%)은 1억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 규모도 늘어나 소득이 9~10분위(월 627만원 이상)인 가구의 절반 이상(58%)이 1억 이상 보유

가구 유형별 40대의 보유 금융자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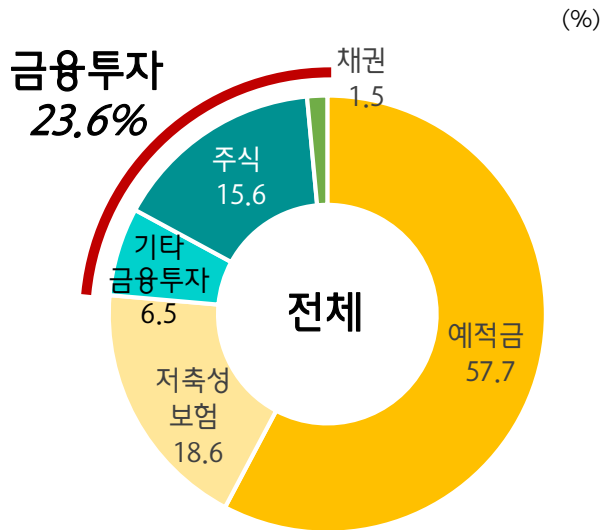
* 전체(n=1,000)

금융자산 중 투자는 '24%'를 차지

금융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비중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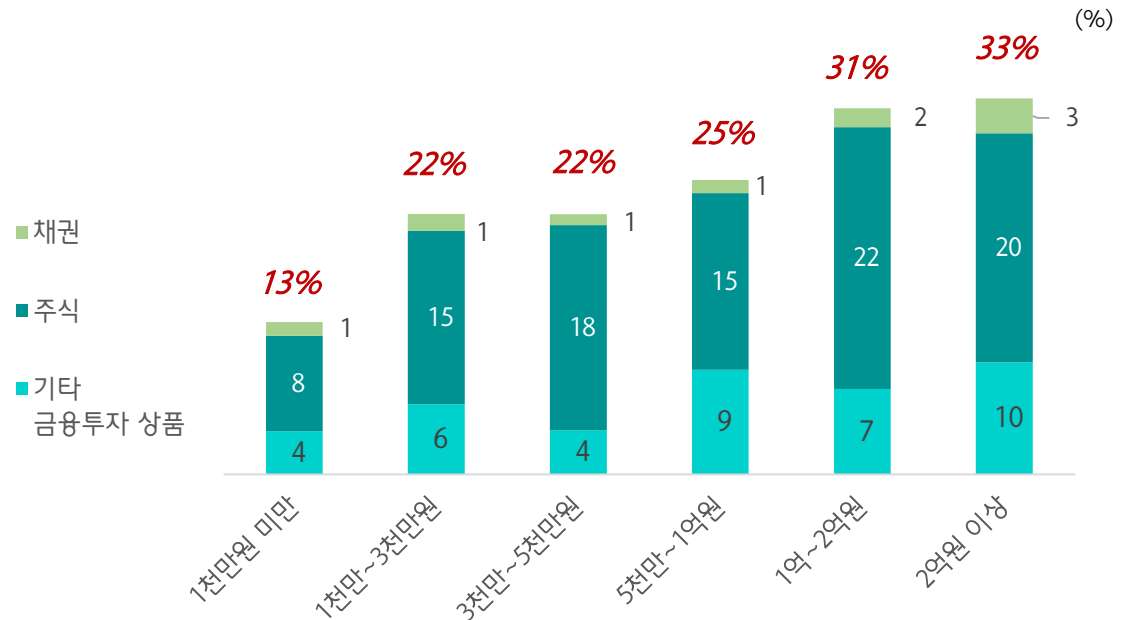
- 40대 금융자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예적금(57.7%)이며 주식, 채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23.6%를 차지
- 금융자산이 커질수록 금융투자자산 비중이 높아져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일 때 투자자산의 비중이 30%를 넘김

40대 금융자산의 평균 구성비



기타 금융투자 상품에는 신탁, 펀드, ELS, 파생상품 등임
* 전체(n=1,000)

금융자산 규모별 금융투자자산의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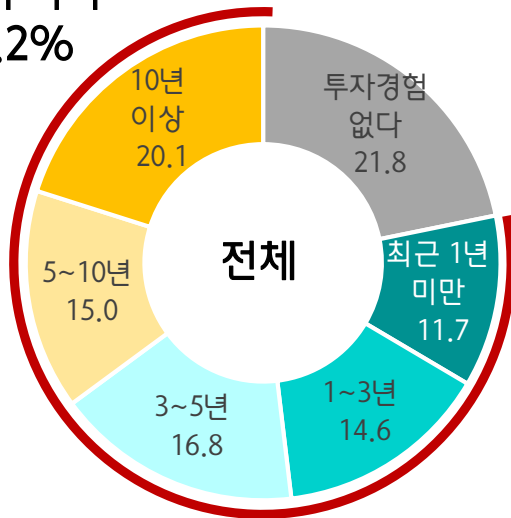
10명 중 8명이 '금융투자자'이며, 이중 15%는 '최근 1년 내에 투자 시작'

-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35.1%는 금융투자 경험이 5년 이상인 경험 투자자이며 20.1%는 경험이 10년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남
- 11.7%는 금융투자 경험이 1년 미만으로 코로나 19 확산 이후로 처음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남
- 금융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경력 5년 이상의 경험 투자자 비중이 높아짐

금융투자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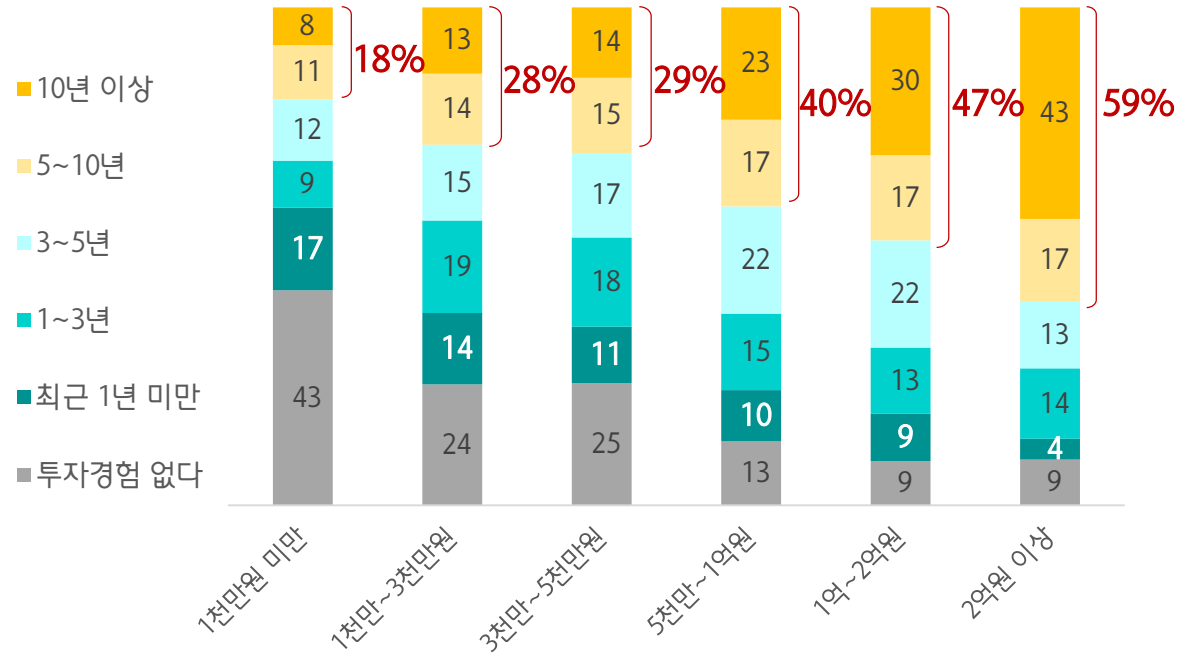
금융투자자
78.2%



* 전체 (n=1,000)

금융자산 규모별 금융투자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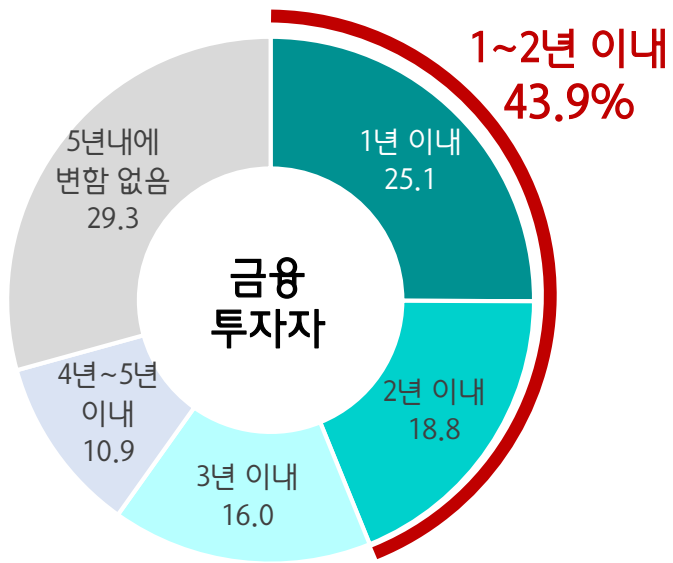


금융투자자 중 절반 가까이가 최근 1~2년 사이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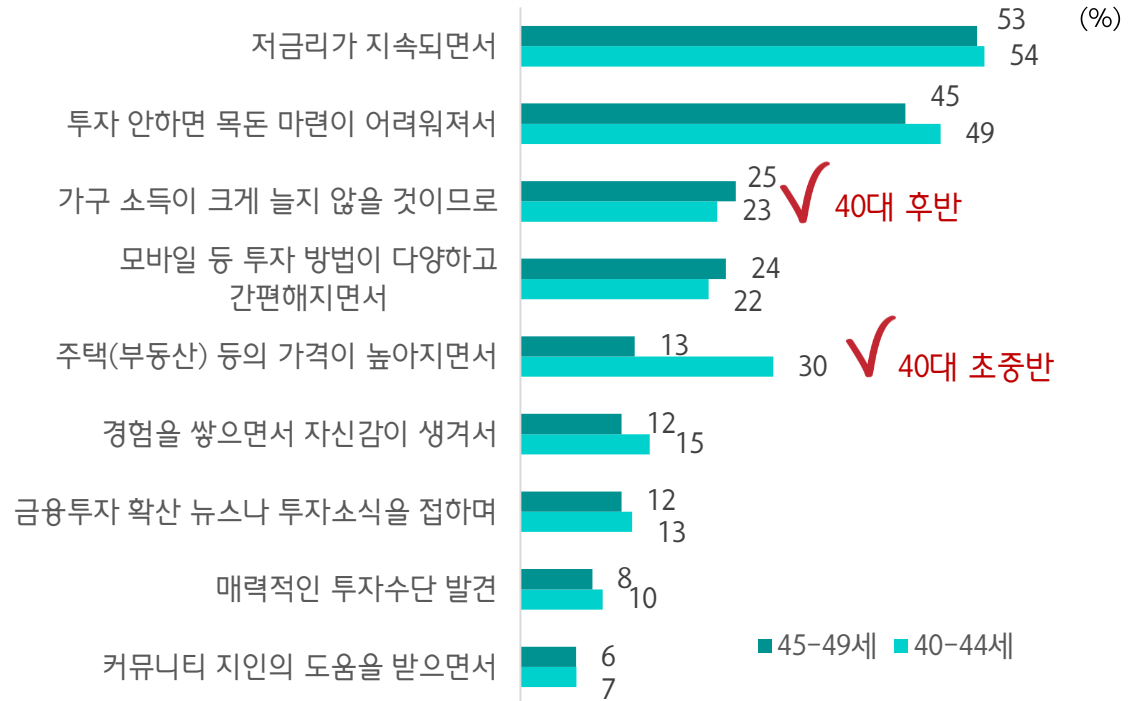
- 금융투자 경험이 있는 40대 가운데 43.9%가 최근 1~2년 사이에 투자를 확대
- 투자를 확대한 이유로 대부분 '저금리 지속'과 '목돈 마련'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연령대에 따라 40대 초중반은 '높아진 주택(부동산) 가격', 40대 후반은 '앞으로 가구소득이 늘지 않을 것'을 이유로 봄 - 더불어 모바일 등 투자방법이 다양해지고 간편해진 것 역시 투자를 확대한 이유로 지목

금융투자 확대 시기

(%)



연령대별 금융투자 확대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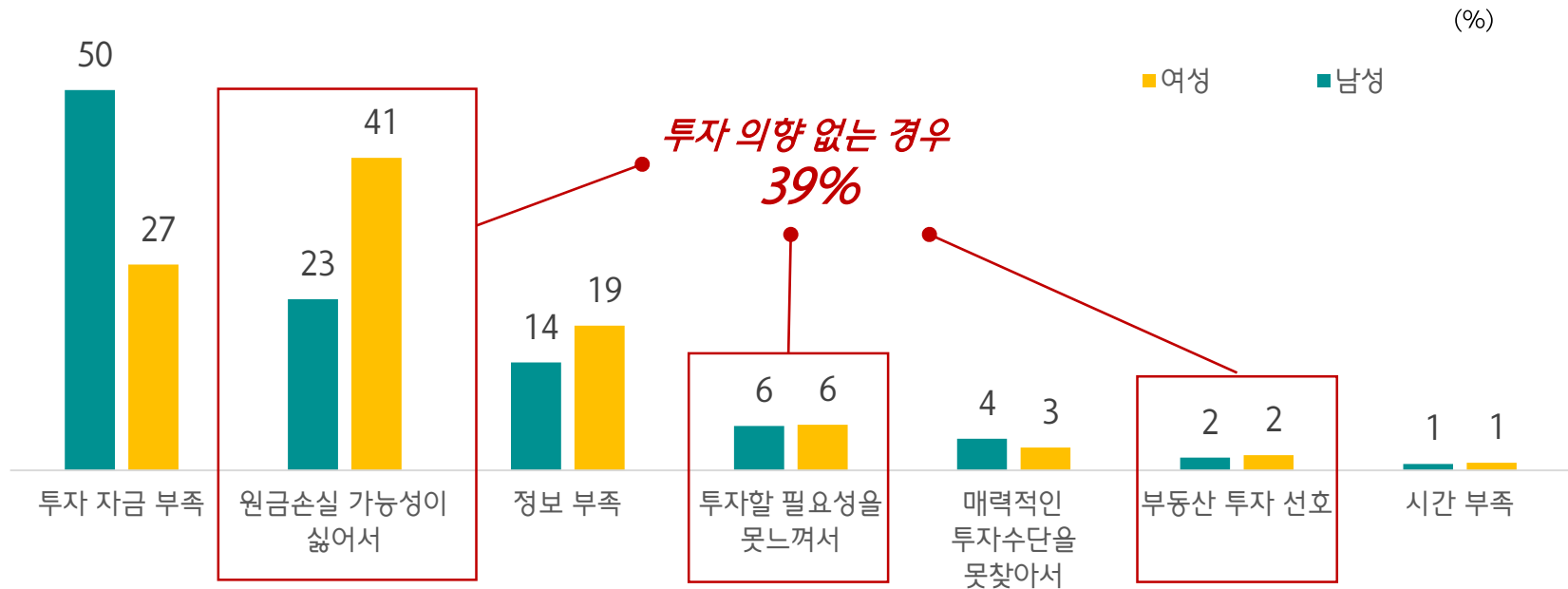
* 금융투자자(n=782)

* 5년 내 금융투자 확대 경험자(n=553)

투자경험 없더라도 61%는 상황만 되면 투자할 계획

- 금융투자 경험 없는 사람들(조사대상 중 21.8%)중 39%만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싫거나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
 -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향후 소득이 늘어 여유가 생기거나, 정보 부족이 해소되면 금융투자를 시작할 수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은 주로 '자금부족', 여성은 '원금손실 부담'이 금융투자를 하지 않았던 이유

금융투자 경험이 없는 이유



* 금융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n=218 (남성=119/여성=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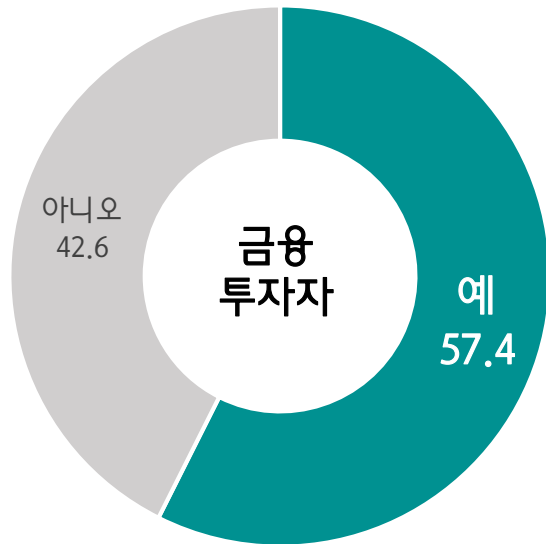
금융투자자의 57%는 앞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

■ 최근에 금융투자를 늘린 경우일수록 앞으로도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년 내에 투자를 확대한 투자자 중 72%는 앞으로도 투자 확대를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함

금융투자 확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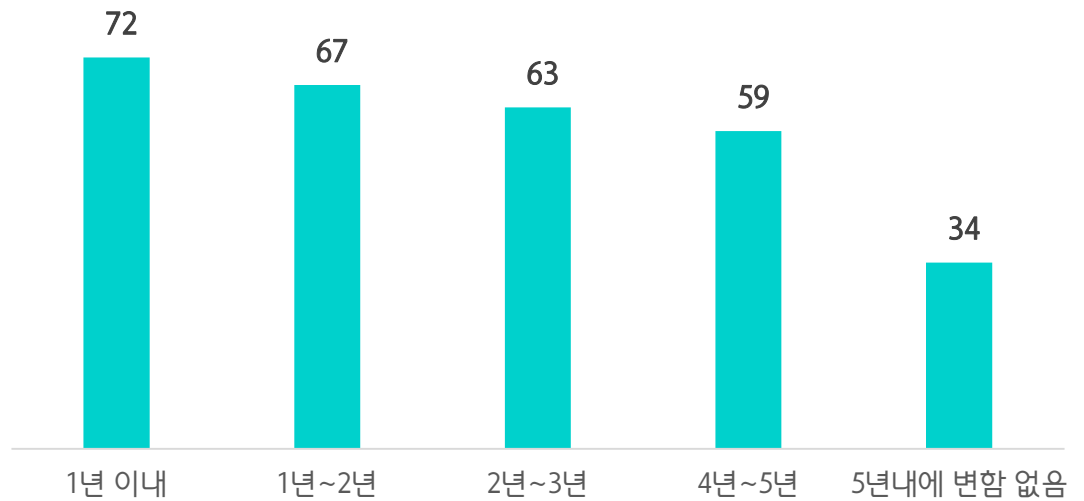
(%)



* 금융투자자(n=782)

최근 금융투자 확대 시점별 향후 투자확대 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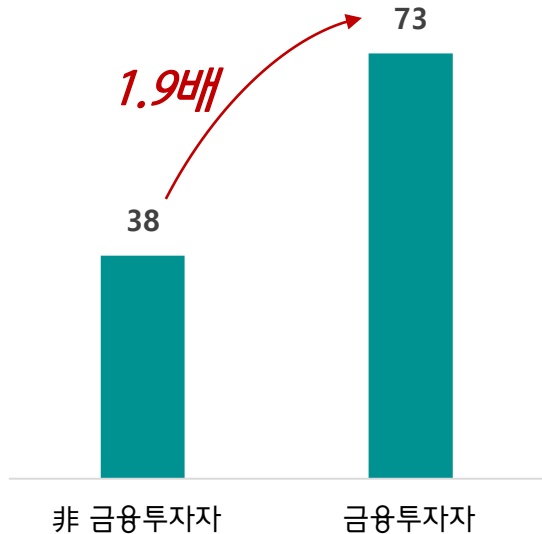
최근 금융투자 확대 시점

금융투자자일 때 노후준비율이 2배 더 높아

- 현재 금융투자자의 73%가 노후준비 중이며 투자경험이 길어질수록 노후준비율이 더 높아짐
 -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 60%가 노후준비 중이며, '1~3년'일 때는 71%, '1~5년'은 70%, '5년 이상'은 79%로 나타남
- 예적금 외에 40대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노후준비 수단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가장 많으며, 최근 투자를 시작한 경우 IRP와 같은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활용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투자자 여부별
노후준비를 위한 자금마련 중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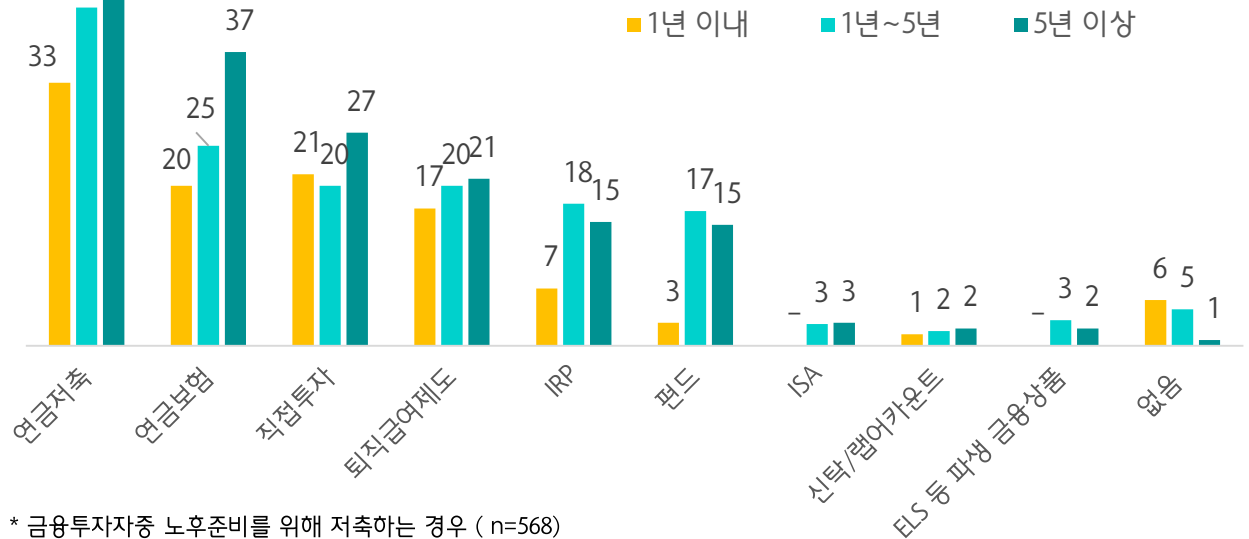
(%)



* 전체(n=1000)

금융투자 경험 기간별 노후준비를 위해 불입중인 금융상품
(예적금 제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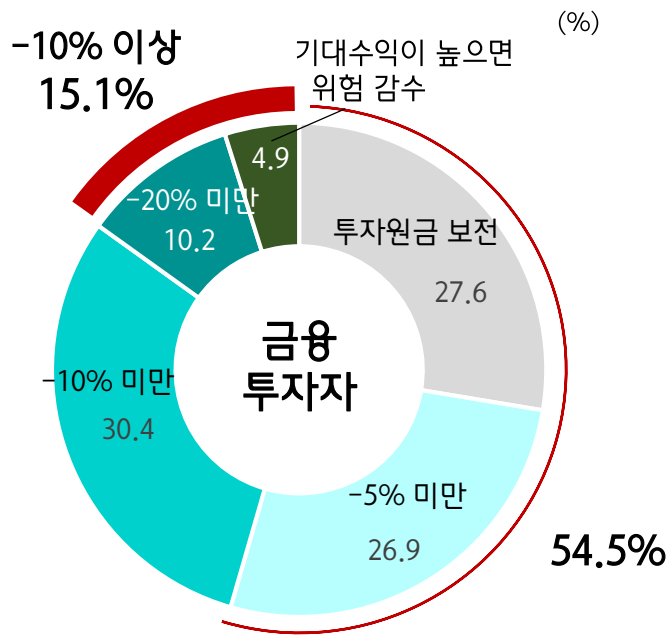


* 금융투자자중 노후준비를 위해 저축하는 경우 (n=568)

금융투자자중 절반 이상이 '투자원금 보전' 또는 '-5% 미만'의 손실을 감수할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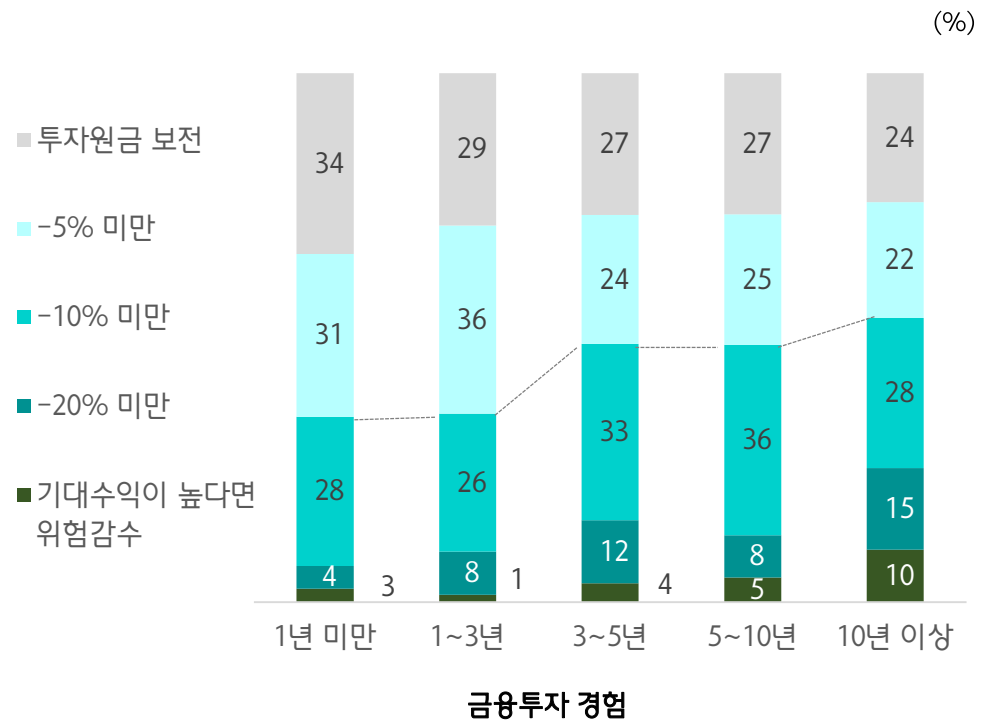
- 금융투자자 중 27.6%는 투자원금 보전을 원하고 26.9%는 감수할 수 있는 손실이 '-5% 미만'으로, 손실감내 의향이 그리 높지 않음
- '-10% 이상'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경우는 금융투자자 가운데 15.1%에 불과
- 투자경험이 길어질수록 투자리스크도 적극적으로 감내하려는 경향

손실 감수 의향



* 금융투자자(n=782)

금융투자 경험별 손실 감수 의향



3명 중 1명은 최근에 리스크 선호도가 바뀜

- 금융투자자 중 38.0%는 최근 리스크 선호도가 바뀌었는데, 보수적인 경우(12.0%)보다 공격적으로 바뀐 경우(26.0%)가 많음

최근 투자 리스크 수용 의향 변화

“전에도 공격적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더 공격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소액이었던 게 지금 액수도 좀 커졌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투자리스크
수용 의향이
높아짐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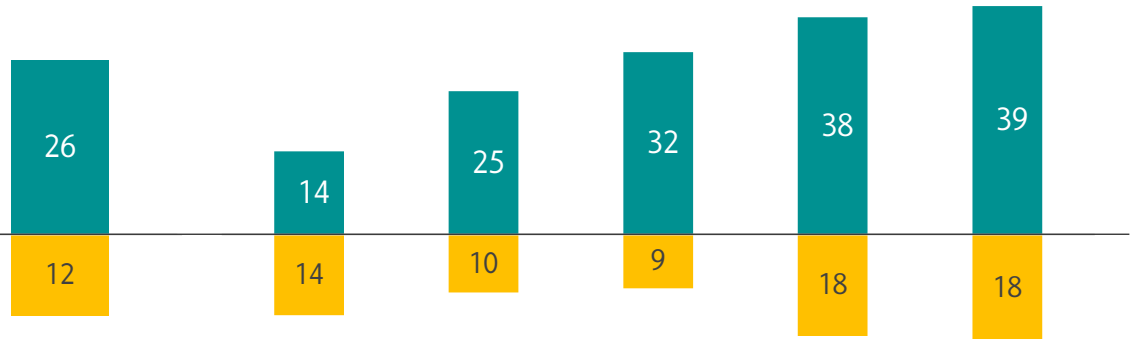
“작년에 홍콩 전쟁 날까 말까 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예금에 넣고 있어요.”
“저축되어 있는 돈만 그대로지 주식이나 펀드는 별로 였어요.
지금 생각했을 때 앞으로 저는 사실 저축만 할 것 같아요.”

투자손실 감수 범위별

(%)

전체

투자원금 보전 -5% 미만 -10% 미만 -20% 미만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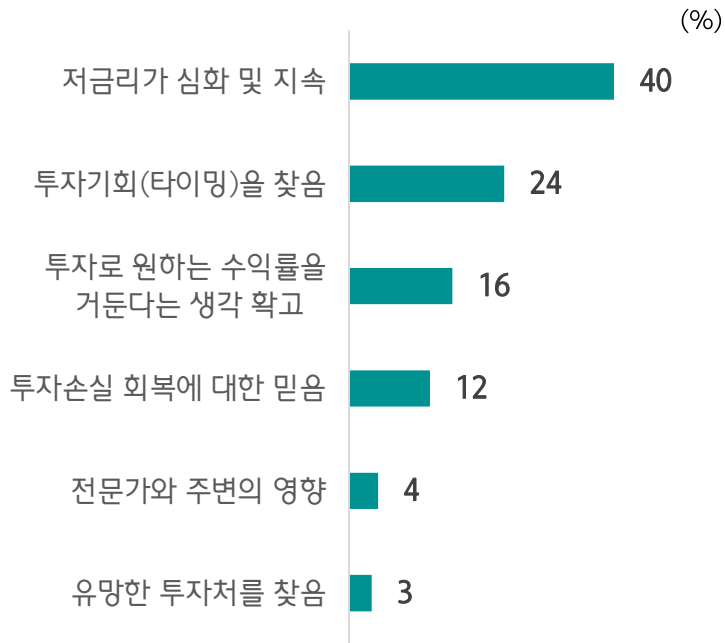


* 금융투자자(n=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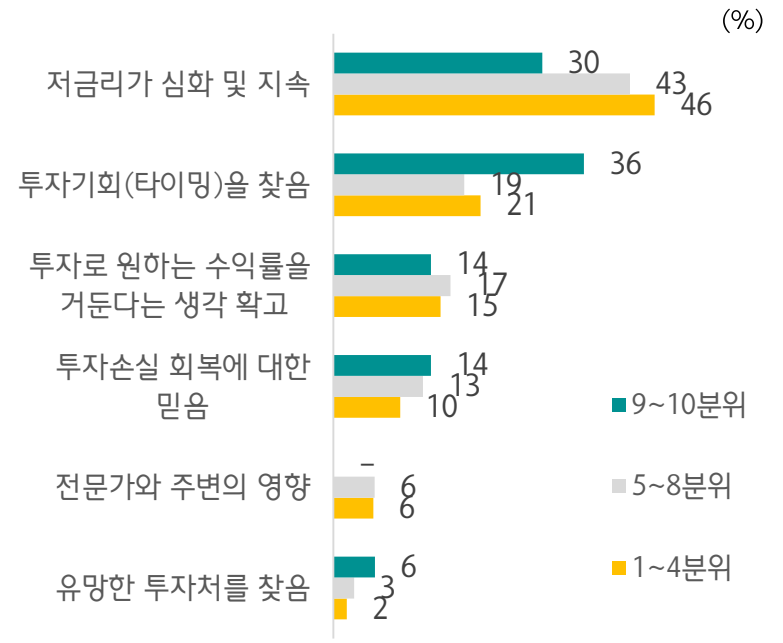
저금리와 최근의 증시 활황이 리스크 수용도를 높인 주요 원인

- 최근 리스크 감내 수준이 높아진 투자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저금리 심화’(40%)와 ‘투자기회(타이밍)을 찾은 것’(24%), ‘투자로 원하는 수익률을 거둔다는 생각이 확고해진 것’(16%)이 주요한 이유로 나타남
- 고소득자(9~10분위)는 ‘투자기회(타이밍)를 찾은 것’, 그 외에는 ‘저금리 심화 및 지속’이 리스크 수용도가 높아진 주 원인

투자위험 수용 의향이 높아진 이유(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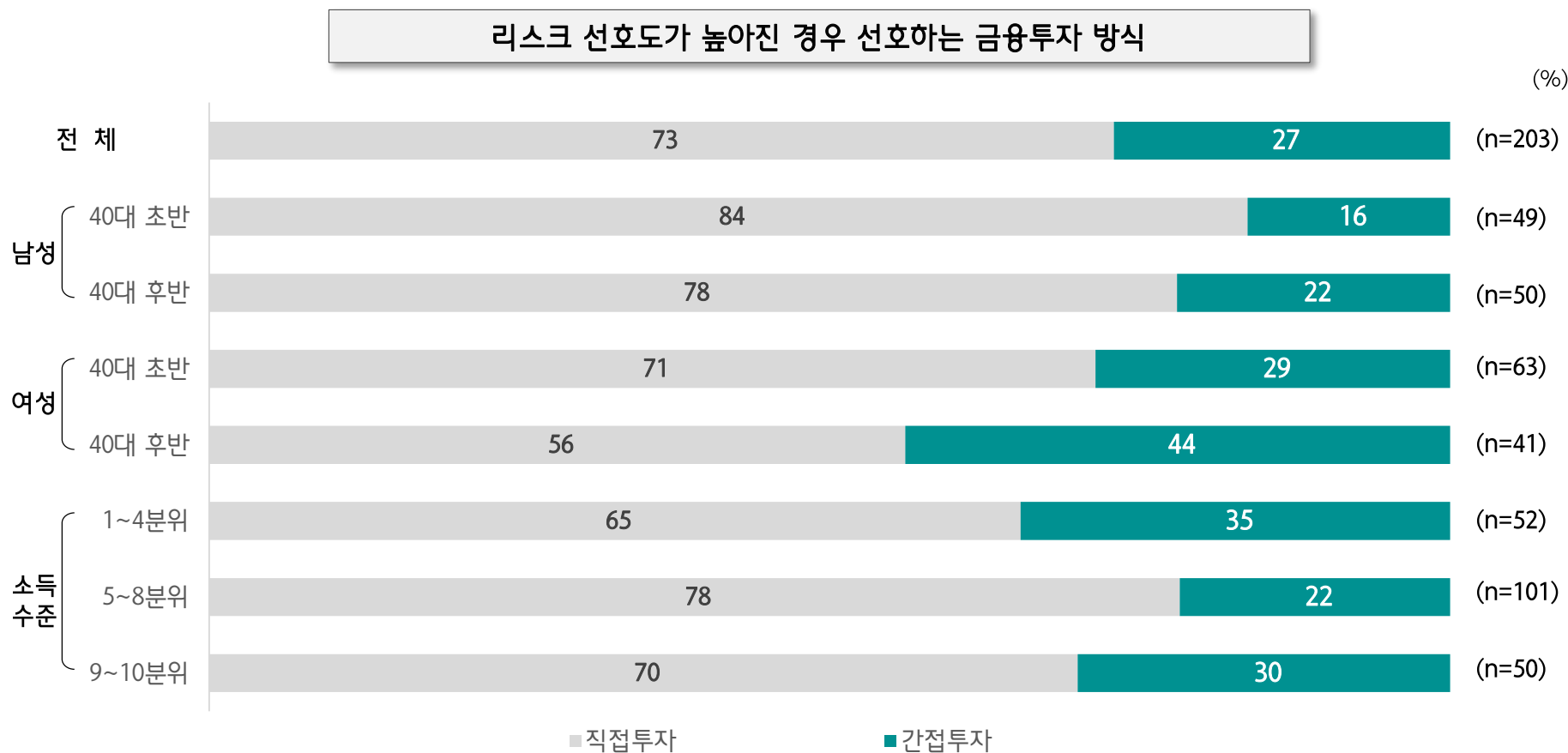
투자위험 수용 의향이 높아진 이유(소득수준별)



* 금융투자자 중 투자리스크 선호도가 높아진 경우(n=203)

리스크 선호도가 높아진 경우 '직접투자'를 선호

- 최근에 리스크 감내 수준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경우 73%가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40대 초반 남성'이 직접투자 선호가 가장 컸고, '40대 후반 여성'의 경우 직접투자 선호 경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소득수준별로 보면 중위소득(5~8분위, 월 298만원~626만원)일 때 직접투자 선호도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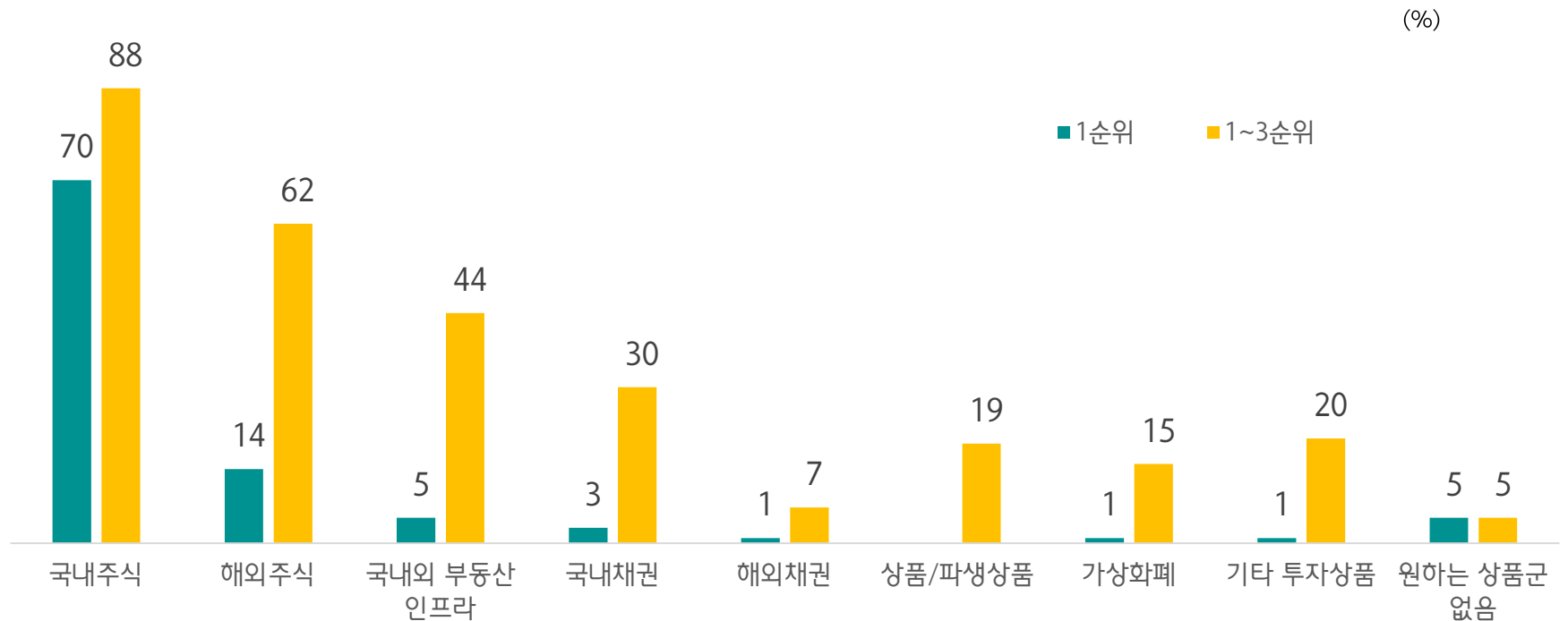


* 금융투자자 중 투자리스크 선호도가 높아진 경우 (n=203)

리스크 선호도가 높아진 경우 국내주식이 투자 1순위

- 리스크 선호도가 높아진 투자자에게 향후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자산군을 물어본 결과 1순위는 국내주식인 것으로 나타남
 - 1순위에서는 국내주식이 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해외주식(14%), 국내외 부동산(5%)의 순
- 1~3순위에서는 국내주식(88%), 해외주식(62%), 국내외 부동산(44%), 국내 채권(30%)의 순

투자를 확대하려는 자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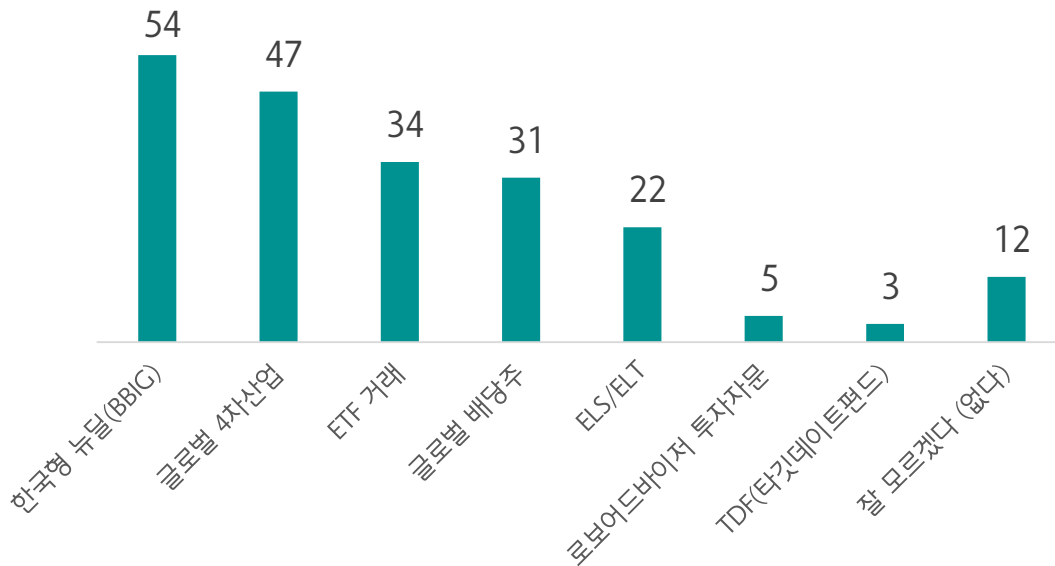
* 금융투자자 중 투자리스크 선호도가 높아진 경우(n=203)

리스크 선호도가 높아진 경우 투자 테마 및 ETF 거래에 대한 인지도 高

- 최근 리스크 감내 수준이 높아진 40대에게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투자이슈 및 투자상품을 물어본 결과 한국형 뉴딜(BBIG), 글로벌 4차산업, 글로벌 배당주 등 투자테마에 대한 인지가 높음
- 금융투자상품 중에서는 ETF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투자 이슈 및 투자상품 인지 여부

(%)



TDF · TIF · ETF · 로보어드바이저 중
들어본 적 있으세요?

“경제뉴스도 보고 시사는 항상 봐요.
요즘 그게 뜨고 있다고는 하는데 ...
ETF가 제일 이슈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고요. 실제로
저도 하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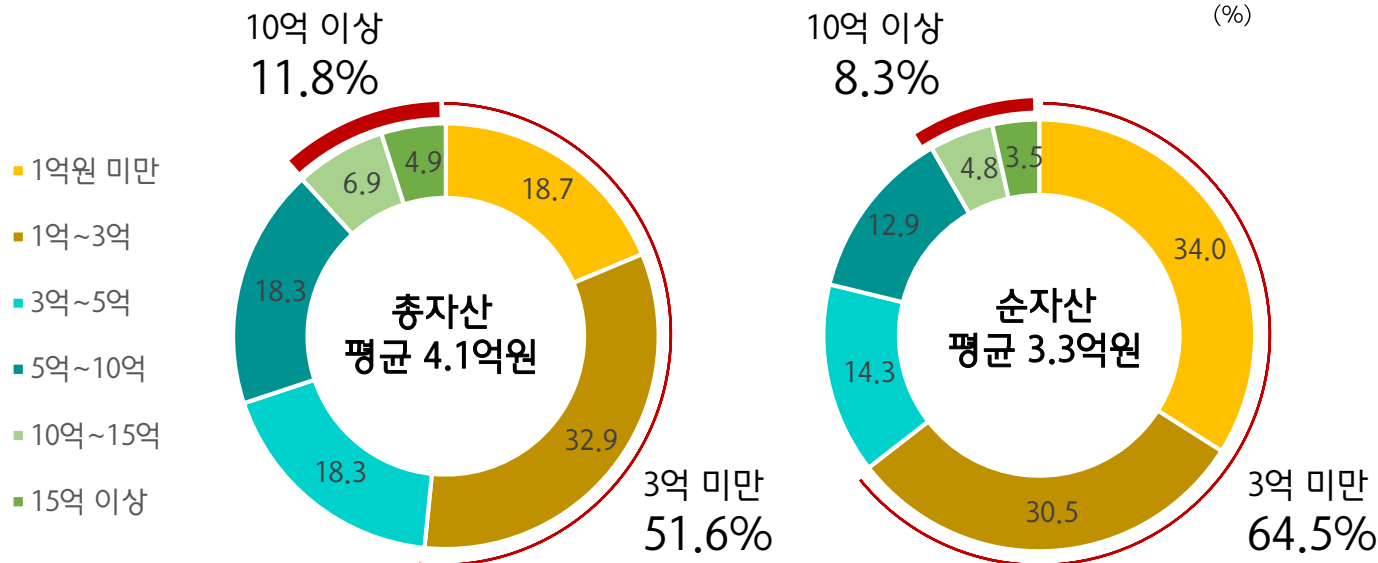
* 금융투자자 중 투자리스크 선호도가 높아진 경우(n=203)

III. 40대의 자산과 부채 현황

40대 총자산은 평균 4.1억원, 총대출은 8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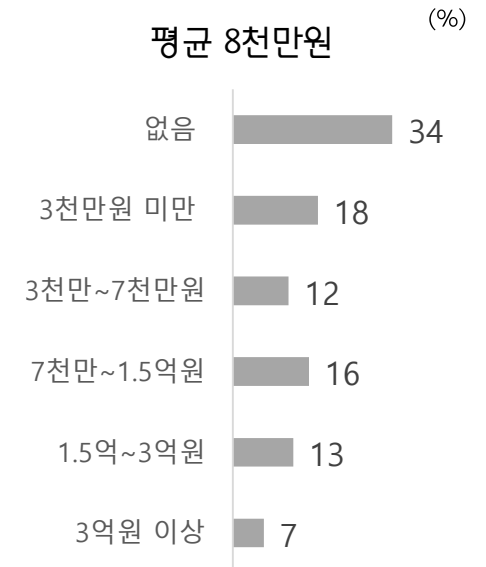
- 서울 및 4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40대의 총자산은 평균 4억 1천만원으로, 이중 총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가 51.6%, '3억~5억원'은 18.3%, '5억~10억' 18.3%,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11.8%를 차지함.
 - 주택담보 대출, 기타 신용대출 등 총대출을 제외하면 40대의 순자산은 평균 3억 3천만원임
- 현재 총대출 잔액은 평균 8천만원이며, 10가구 중 7가구(65.9%)는 대출잔액이 남아 있어 상환부담이 있는 상태
 - 대출 경험이 없거나 남은 대출잔액이 없는 가구(34%)부터 대출이 1억 5천만원 이상 남은 경우(20%)까지 부채규모 다양

40대 소득자의 총자산 및 순자산



* 전체(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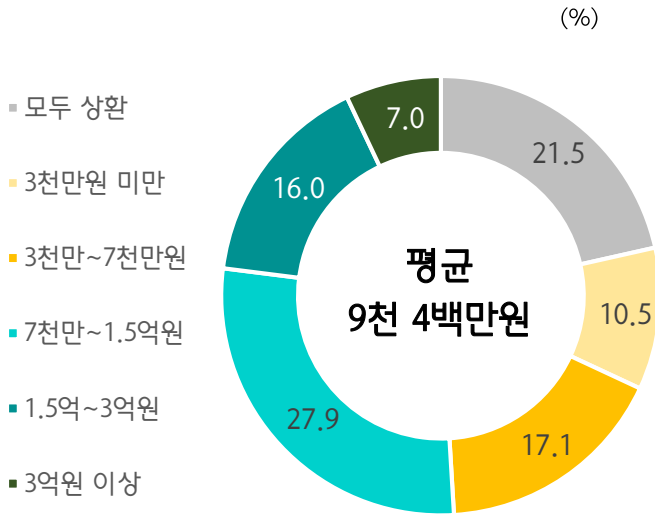
대출 잔액



주거관련 대출잔액은 ‘평균 9천 4백만원’ 그 외 신용대출 등의 잔액은 ‘5천 9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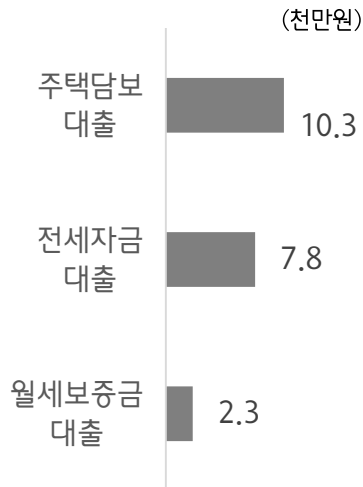
- 주택담보대출, 보증금 대출 등 주거 관련하여 대출을 경험한 경우는 조사대상 중 52.6%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21.5%는 주거 관련 대출 상환을 마침
 - 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평균 1억원, 전세자금 대출은 평균 7.8천만원, 월세보증금 대출은 2천3백만원
- 주거와 관련된 것 이외에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등의 현재 잔액은 평균 5천 9백만원으로 나타남

주거 관련 대출 잔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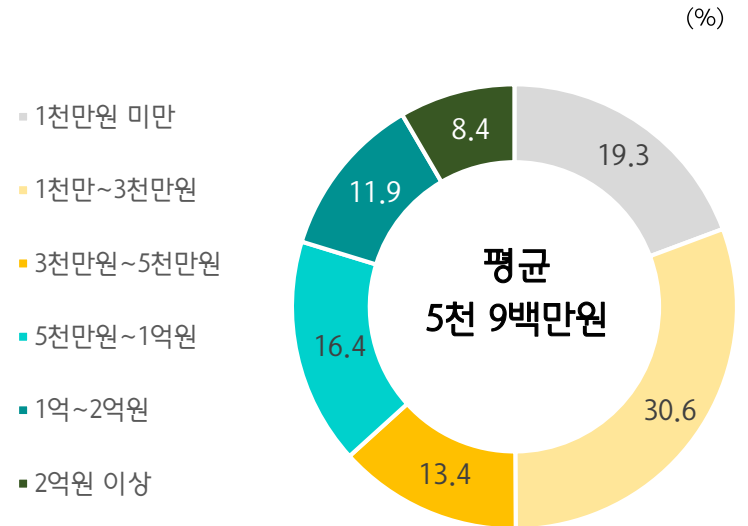


* 주거 관련 대출 경험자(n=526)

유형별 평균 잔액



주거 외 대출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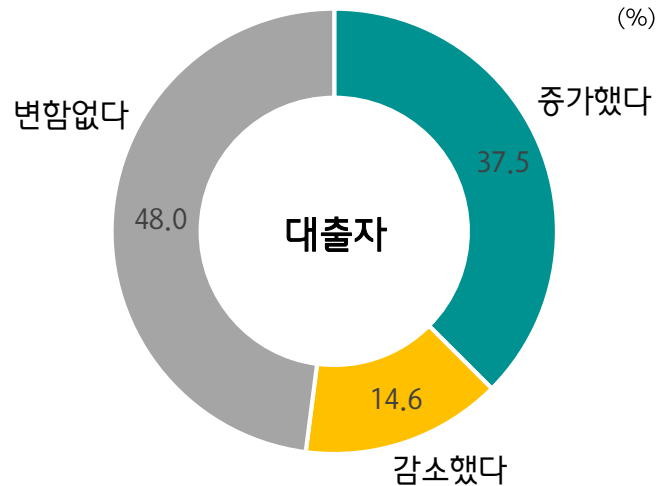


* 주거 목적 외 대출 보유자(n=523)

‘코로나 19 확산’ 이후 대출자 중 37.5%가 추가적으로 대출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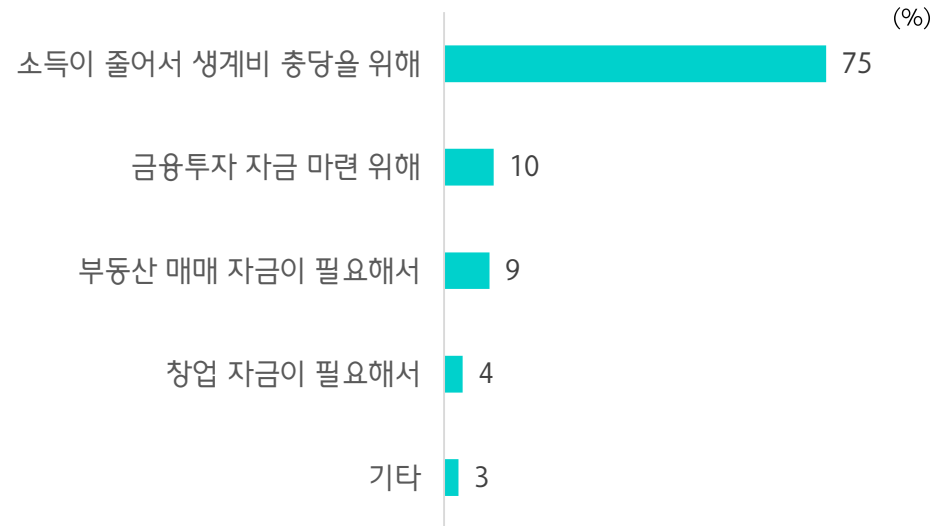
- 현재 대출자(65.9%) 중 37.5%(전체 조사대상 중 24.7%)는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해 대출규모가 늘었다고 응답
- 대출이 증가한 사람 대부분(74.9%, 조사대상 중 18.5%)은 코로나 이후 소득이 줄어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9.7%(조사대상의 2.4%)가 금융투자 자금을 위해, 8.9%(조사대상의 2.2%)는 부동산 매매자금에 필요하여 대출이 늘었다고 응답

코로나 19 확산 이후 대출 증감



* 주거 및 기타 대출자(n=659)

대출이 늘어난 이유



* 대출이 증가한 경우(n=247)

지난 발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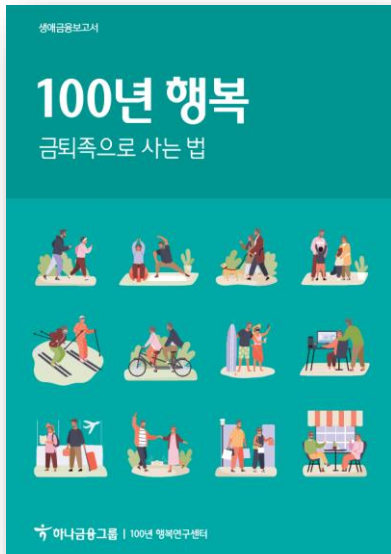


[생애금융보고서 No.1]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20년 05월)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평균 12.5년
소득 크레바스에 놓인 퇴직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법”*

100년 행복 연구소는 서울·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남녀 퇴직자를 대상으로 소득 크레바스의 현실에 대해 알아봤다. 이들이 당장 얼마나 지출하고, 어디서 생활비를 마련하는지, 앞으로 노후자금은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지 조사했다. 더불어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뒤 심적인 부적응을 겪지는 않았는지, 이후 여가생활과 인간관계의 변화상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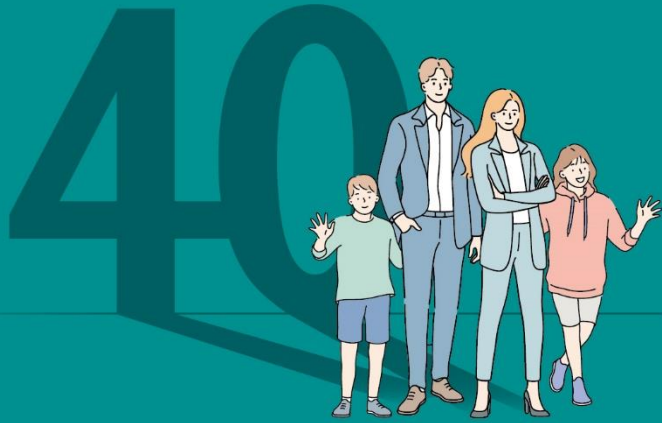
[생애금융보고서 No.2]

100년 행복 금퇴족으로 사는 법, (2020년 09월)

“하나은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후 걱정 없는 미래 금(金)퇴족을 분석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는 하나은행 시빅데이터센터와 함께 60세부터 기대여명까지 현재 소비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연령대와 소득수준별로 그 기준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스를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드러난 금퇴족의 금융투자 현황을 벤치마킹하여 노후자금 준비도를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금퇴족 점수표를 제시하였다.

※ 본 보고서는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100년 행복연구센터